

승부조작 거명 선수들 '발끈'

〈프로야구〉

야구위원회로부터 처분 받은 이태양·문우람, 입장 표명 "정우람·문성현 등도 가담해" 거명된 선수들 '결백' 주장 야구위원회, 사실 확인 나서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5)과 전 넥센 히어로즈 외야수 문우람(26)이 승부조작을 저지른 선수들이 더 있다며 실명을 거론한 가운데, 거명된 선수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승부조작에 연루돼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영구실격 처분을 받은 이태양과 문우람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우람(33·한화 이글스), 문성현(27) 정대현(27·이상 넥센 히어로즈), 김택형(22·SK 와이번스), 이재학(28·NC) 등도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배포한 자료에는 승부조작 브로커 조모씨가 이태양에게 이 선수들이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명이 거론된 선수들의 소속팀은 즉시 확인에 나섰다. 선수들은 결백을 주장했고,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우람은 한화를 통해 "기자회견 중 밝혀진 불법시설 운영자, 브로커와 일절 연관성이 없다. 나의 이름이 거론된 것조차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한화는 "정우람은 무고한 선수에게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원래 이날 오후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참석할 계획이었던 정우람은 참가하기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다.

한화는 "정우람이 본인과 무관한 일에 이름이 언급됐다. 시상식 외적인 부분에 관심이 집중될 경우 프로야구 구원원과 야구 팬들의 최대 잔치에 누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다"며 "시상식 본연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결정으로,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넥센도 공식 입장을 내고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문성현, 정대현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승부조작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넥센 구단은 "문성현은 지난해 상무 소속 시절 문우람 사건으로 인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본인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아니었다"며 "문성현이 지금까지 어떤 승부조작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구단이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 중인 정대현도 KT 위즈 소속으로 활동



이태양(왼쪽)과 문우람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문우람 관련 이태양 양심 선언 및 문우람 국민 호소문 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던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어떤 승부조작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택형의 소속팀인 SK도 "김택형에 대한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고, KBO에도 신속하고 명확한 사실 조사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SK는 곧바로 김택형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형은 "이태양과 친분이 깊지 않고, 승부조작과 관련된 어떤 제안도 받은 바 없다. 내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어떤 조치도 달게 받겠다"며 "사실이 아닐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나와 구단에 피해를 준 두 선수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주장했다.

SK는 "김택형이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는 구단에 입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태양, 문우람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선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이태양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학의 소속팀인 NC는 "이재학은 창원지검과 의정부지검에서 두 차례 관련 조사를 받았으며 승부조작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역시 부인했다.

넥센은 문우람이 폭로한 2015년 5월 폭행 사건은 인정했다. 문우람은 이날 회견에서 "2015년 5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팀 선배에게 배트로 폭행을 당했다. 머리를 7차례나 맞아 뇌진탕 증세가 오고 얼굴이 부어올라 게임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넥센 관계자는 "당시 폭행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폭행을 한 선수가 문우람과 선수 아버지에게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됐다"며 "당시 구단 차원에서 징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KBO는 사실 확인에 나섰다. 정금조 KBO 사무차장보는 "기자회견에 이름이 언급된 선수들에 대해 각 구단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고, 조사를 통해 진위를 파악할 것"이라며 "문우람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올림픽 공동진출 공동개최 협의

남북, 14일 체육분과회담 공동연락사무소서 개최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이 오는 14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된다.

통일부는 10일 '남과 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을 오는 14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2020 도쿄 하계올림픽 공동진출 및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등을 협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정부가 지난 7일 대북통지문을 통해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을 제의했고 북측이 8일 회담 제의를 수용해 성사됐다.

남측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북측은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 수석대표로 참여할 예정이다. /뉴시스



전주비전스포츠클럽 출범식이 10일 전주비전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렸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손쉽게'

전주비전스포츠클럽 공식 출범

전주비전스포츠클럽이 10일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은 전주비전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렸다.

비전스포츠클럽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지역스포츠클럽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도내 6번째 클럽이 됐다. 앞으로 3년간 9억원의 정부기금이 지원된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스포츠클럽에서 운동하게 하자'는 비전을 내세운 비전스포츠클럽은 공공성과 다양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태권도와 배드민턴, 축구, 농구, 요

가 스쿼시 종목에 대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엘리트 선수 육성은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인재 양성과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출범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전주비전스포츠클럽이 기존에 있는 스포츠클럽과 연계해 지역 체육인재 육성과 체육복지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육상 정혜림·사이클 나아름, 여성스포츠 대상 수상

육상의 '허들 공주' 정혜림(31·광주시청)과 사이클 여제 나아름(28·상주시청)이 제7회 MBN 여성스포츠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정혜림과 나아름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상금 1000만원과 상패, 부상을 받았다.

MBN 여성스포츠대상 공동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에는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쌍두마차 심석희(한국체대), 최

민정(성남시청)이 공동 수상했다.

정혜림은 올해 9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육상 여자 100m 허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아시안게임 한국 육상의 유일한 금메달이었다. 정혜림은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 8년 만에 한국 육상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선사했다.

나아름은 한국 사이클 역대 최초로 아시안 게임 4관왕에 올랐다. 개인도로를 시작으로 도로독주와 단체추발, 매디슨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뉴시스



10일 열린 MBN 여성스포츠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HOPE

무주군의회의 또 다른 이름

희망의회의!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
정치가는 다음세대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